

이민생활서 익힌 유통·경영 노하우 적용 농산물 생산

7년째 신안군 압해읍서 농업활동 '천사농부농장'

청년창업농 1기 선정 딸기 재배 시작 딸기와 배 재배까지 연중 농업 체계화 식물공장 활용 기후변화 대응 노력

11년간의 해외 이민생활에 마침표를 찍고 신안군으로 귀농한 농부가 있다.

신안군 압해읍 일원에서 7년째 딸기, 배 등을 재배 중인 한선웅 천사농부농장 대표다.

딸기 수확체험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함께 운영하면서 미래세대에 농업의 중요성을 각인시키고 있으며 배 해외수출로 지역농산물 저변 확대에도 기여하고 있다.

식물공장을 연내 구축해 급변하는 기후위기에 맞서 꾸준한 농업활동을 이뤄나갈 수 있는 방안들을 발굴해내는 데 주력할 계획이다.

●사계절 농업 실현

신안군 압해읍 동서리 1035 한 비닐하우스. 장화를 신은 채 쭈그러 앉아 연신 딸기 모둠 줄기를 솟아내는 한 농부가 눈에 띈다.

지난 2017년 호주 이민생활을 마치고 신안군 압해도에 귀농한 한선웅 천사농부농장 대표다.

귀국 당시 청년창업농을 모집한다는 인터넷 광고를 접한 한 대표는 곧바로 지원해 청년창업농 1기 교육생에 선정됐다.

누구나 즐겨 먹는 과일로 판로를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판단한 한 대표는 전남대 창업보육센터에서 딸기재배 교육을 받았다. 이론 3개월과 현장실습 6개월, 경영실습 1년 등 모두 1년 9개월 과정을 수료했다.

학습한 것을 바탕으로 나주시에서 800평을 임대해 첫 딸기농사에 도전, 안정적인 수익을 창출해 냈다.

이론교육과 실습을 모두 익힌 한 대표는 2020년 6월 1억2000만원을 융자받아 처가인 신안군 압해읍 동서리 일원에 1000평 규모 비닐하우스 4개 동을 본격적으로 운영하게 됐다.

비닐하우스 한편에는 어린이들이 참여할 수 있는 딸기수확 체험장을 마련해 매년 12~2월 사전접수를 받아 운영하고 있다.

신안군 압해읍에 자리를 잡기 시작한 한 대표는 딸기 재배 외에도 배 재배까지 영역을 넓혔다.

신안군 압해읍 복룡리 393-1 일원 1000평에서 배 재배를 시작해 현재 1만1000평으로 면적을 확대해 나갔다.

한 대표는 "딸기는 겨울에 재배되는 작물로 한시적 소득원이다. 봄·여름·가을 추가적으로 재배할 수 있는 작목을 고민하던 중 오래 전부터 배를 키워왔던 처가 식구들의 권유로 배 농사까지 하게 됐다"며 "배는 정확한 가지치기가 뒷받침돼 생육 속도에 탄력이 붙어 열매가 딸달리게 된다. 처가 식구들의 노하우를 전수받을 수 있어 배를 재배하는 데 어려움이 없었다"고 설명했다.

딸기는 지난해 압해농협과 지역민 직거래로 9톤·



2017년 호주 이민생활을 마치고 신안군 압해도에 귀농한 한선웅 천사농부농장 대표. 압해읍 복룡리 일원에서 1만1000평규모 배 재배를 하고 있다.

9000만원을 기록했으며 배는 집중 재배지역인 복룡리 일원에 수출작목반이 형성돼 있어 60톤·2억원 상당이 수출길에 오른 바 있다.

●해외유통경험 농업 '적용'

한 대표가 신안으로 귀농을 택하게 된 이유는 영업 경험을 농업에 적용해 지속가능한 농업을 실현하기 위해서다.

한 대표는 "2004년 임용고시에 두 번 낙방한 후 학생비자로 호주로 떠났다. 2006년 결혼 후 아내와 함께 호주에서 이민생활을 하며 청소용역과 생활용품 수입수출하는 무역업을 병행하면서 소비자들을 어떻게 대하고 관리해야 하는지 방법을 터득하게 됐다"며 "이민생활을 시작하자 5~6년이 지나 호주생활에 적응할 무렵 매해 배를 어디에 팔아야 할지 유통을 고민하는 처가식구들의 소식을 듣게 됐다. 호주에서 쌓은 유통경험을 농업에 도입해 매해 걱정 없이 농업을 이어나갈 수 있게 도와야겠다고 결심해 신안으로 귀농을 결정하게 됐다"고 말했다.

망설임 없이 귀농을 했지만 딸기부터 배까지 순탄히 재배를 하기까지 쉽지만은 않았다. 관련 농기계 구입에 어려움이 있었던 것.

한 대표는 "용자로 딸기 비닐하우스를 만들었기 때문에 판매수익으로 빚을 갚기 바빴다. 배와 딸기를 재배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트랙터와 콤팩트 등을 사용해야 한다"며 "트랙터 1대에 기본 7000만원 이상, 콤팩트도 8000만원 이상으로 단번에 농기계를



한선웅 천사농부농장 대표가 딸기 줄기를 솟아내고 있다.



한선웅 천사농부농장 대표의 딸기 비닐하우스. 7년째 신안군 압해읍 일원에서 딸기와 배 등을 재배하고 있다.

구입하기가 망설여졌다. 인근 농가 어르신들이 종종 찾아와 자신들이 사용 중인 농기계를 선뜻 빌려주곤 했다"고 말했다.

이어 "주위 이웃 농가들의 도움이 현재까지 딸기와 배를 재배할 수 있었던 원동력이나 마찬가지이다"며 "일정 부분 빚을 갚고 생긴 수익으로 농기계장비를 구입할 수 있게 돼 농업을 이어나갈 수 있게 됐다"고 덧붙였다.

●식물공장 설립 기후변화 대응

한 대표는 식물공장을 구축해 지역농가들과 상생하는 농업을 모색해 나가는 게 목표다.

식물공장은 인공조명, 제어된 온도, 습도, 영양 수준을 이용해 폐쇄된 환경에서 작물을 재배하는 농업 방식이다.

한 대표는 "식물공장은 날씨에 상관없이 연중 작물 생산이 가능하고 물과 양분을 전통적인 야외 농업방식보다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어 물, 영양소 사용 낭비를 줄일 수 있다"며 "장기적인 폭염, 예상할 수 없는 폭우 등 기후변화는 노지에서 재배되는 작물부터 영향을 끼친다. 식물공장을 구축해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농업 선순환 방안들을 탐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글·사진=조진용 기자

배추 아주심기 시기... 관리 철저히 해야

전남 농기원이 전하는 주간농사정보

고추는 수확 후 품질 관리 딸기 모종 심고·수분 조절

전남농업기술원(농기원)이 9월 첫째 주에 배추심기철이 다가오면서 알맞은 관리가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농기원은 중부지방 9월 상순, 남부지방

9월 중순이 배추아주심기(식물이나작물을 이전에 자라던 곳에서 수확할 때까지 재배할 곳에 옮겨 심는 것) 시기라고 전했다.

아주심기 후 15일 정도에 배추의 생육 상태에 따라 웃거름을 준다.

심는 시기가 고온기이므로 흐린 날 오후에 심는 것이 모의 활착에 좋다. 특히 고

온다습으로 웃자라기 쉬우니 알맞은 수분 관리와 환기가 필수다.

아주심기 일주일 전에는 포장 환경에 견딜 수 있게 물을 주는 양을 줄이고 온도를 낮춰 직사광선에 많이 노출시켜 묘를 순화한다.

고추는 수확시기에 접어들어 수확 후 음식에 퍼 넣어 2~3일 정도 후숙시키면서 병든 고추를 제거하고, 착색시킨 후 세척해 건조한다.

하우스 건조는 환기팬을 이용하여 환기하며 뒤집기한다. 열풍건조는 55~60℃로 36시간 유지하고 충분히 제습하고, 열풍건조기에서 수분 40~80%로 건조한

후 하우스에서 건조한다.

딸기는 화아분화(영양생장에서 생식생장으로 변화하며 잎눈이 꽃눈으로 전환되는 것)가 완료되거나 감응기에 접어들면 시점 기준으로 9월 중순 이후 심는 것을 권장한다.

또 관부가 절반 이상 묻히고, 항상 젖어 있는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 활착 촉진을 위해 자주 살수하거나 점적호스로 세밀히 관수해야 한다.

과실은 한 나무에서도 열매 달린 위치에 따라 과실의 익는 때가 다르므로 익은 과실만 골라서 여러 차례 나누어 수확하도록 해야 한다.

맛이 들지 않은 미숙과를 출하하면 소비를 위축시킬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 완숙과를 수확해 포장 규격을 다양하게 출하한다.

화훼 중 포인세티아 종은 대부분 크리스마스 출하를 목표로 해 모주용은 9월에 삽목하며, 왕성한 근계가 형성되기까지는 대략 4~4.5주가 소요된다.

인삼은 대체로 9~11월 땅이 얼기 전에 생육상태, 시장 수요에 맞춰 수확시기를 조절한다. 조기에 낙엽이 지거나 생육이 불량한 포장은 8~9월 일찍 수확하며, 지상부가 건전한 포장은 가급적 9월 하순 이후 수확한다.

송민섭 기자